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의 사적 고찰

Historical Review of the subject ‘Right Life’
as Integrated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방법전공

고 달 호

2010년 2월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의 사적 고찰

Historical Review of the subject ‘Right Life’
as Integrated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지도교수 서 명 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방법 전공

고 달 호

2009년 11월

고달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12월

국문초록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의 사적 고찰

고 달 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방법전공

지도교수 서명석

통합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상의 변화가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통합 교과 교육과정은 1982년부터 시행된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에 도입한 이래 현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어 오고 있다. 통합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통합 교육방법 탐색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통합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통합 교육과정 운영과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들과 통합 방식에 관한 연구들이다. 통합 교과의 교육사적 의의나 변천과정에 대한 논문은 거의 드물다. 따라서 이 연구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정에 있어서 통합 교과를 도입한 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 까지의 '바른생활'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바른생활과의 성격, 목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바른생활'교과의 편제와 교육과정 체계, 교과 특성과 교육목표, 지도 내용 및 방법, 평가 등을 교육과정 개정 차시별로 비교 논의해 봄으로써 통합교육과정인 '바른생활'교과를 현장에서 운영하거나 통합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할 때 토대가 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위의 연구을 통해 통합교육과정인 '바른생활'교과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제4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바른생활'교과가 그동안 우리나라 초등교육에서 20여년 동안 자리 잡아 오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위치나

발달적 특징에 적합한 통합교과로서의 개념을 정립했다는 자위적인 평가를 할 수 도 있겠다. 통합교과로서의 바른생활이 건전한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이라는 교과 목표 속에 실천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습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 더 고무적인 변화는 진정한 통합교과로서의 변환을 이루어 학습자 중심의 탈교과적인 통합방식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도덕적 요소 중심의 바른생활과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바른 인성, 도덕성 함양, 학습 방법이나 학습 활동에도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 통합 교과로서의 바른 생활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통합 교과인 바른생활과는 서양 교육학의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의 현장을 점검해 보면 '활동 대 교과'의 패러다임이었다. 그리하여 바른생활과의 실제는 지식범주를 통합하려는 세계만이 목격되었다. 즉 바른 인성, 도덕성 함양을 추구해야 하는 바른생활과에는 '사-람-됨'을 고양시켜 나아가는 교육 즉 사람의 품급을 교육적으로 격상시키려는 인격통합교육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배태하고 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서양식의 바른생활과에는 인격통합이라는 교육영역이 삭제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서양식 바른생활과에 배타하고 결락되어진 부분을 인격통합 교육으로 재탄생 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교과, 바른생활, 통합교육과정

차 례

국문 초록	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방법	2
II. ‘바른생활’교과의 사적 전개	3
1. 전기(제4차 교육과정)	5
2. 중기(제5차~제6차 교육과정)	6
3. 후기(제7차~2007년 개정 교육과정)	8
III. ‘바른생활’교과의 사적 고찰	12
1. 편제와 교육과정 체제	12
2. 특성과 교육목표	17
3. 지도 내용 및 방법	24
IV. 요약 및 결론	32
1. 요약	32
2. 결론	36
참고 문헌	38
ABSTRACT	4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초등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은 학습자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 측면과 교수의 효과 측면, 실제적인 유용성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통합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남해진(2005: 1)에 따르면 초등학교 아동들의 발달 및 학습의 특성상 이 시기의 교수 학습 방법 및 내용은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고가 미분화되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며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이나 법칙, 이론을 형성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학습과제 활동을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통합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내용을 조직함에 있어서 나열된 지식의 총화로서 전체를 다룰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핵심이 되는 기초 구조(fundamental structure)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개념과 원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조직은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육과정의 통합은 지식의 폭발에 잘 대처해 줄 뿐만 아니라, 지식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최경로, 1996: 1).

통합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상의 변화가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통합 교과 교육과정은 1982년부터 시행된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에 도입한 이래 현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어 오고 있다. 통합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통합 교육방법 탐색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대현, 1995; 송춘식, 2002; 최옹기, 2003; 권기철, 2005).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통합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통합 교육과정 운영과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들(강주석, 1990; 김경희, 2001; 문제온, 2003)과 통합 방식에 관한 연구들(김태문, 1992; 최소자, 1993; 최경로, 1996; 배 건, 1997; 고영희, 1999)이다. 통합 교과의 교육사적 의의나 변

천과정에 대한 논문은 거의 드물다. 따라서 이 연구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정에 있어서 통합 교과를 도입한 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바른생활’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여 그 내용들을 비교, 분석, 해석하는 연구 과정을 거쳤다. 통합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기초로 우리나라 바른 생활 교과가 등장한 제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통합 교육과정인 바른생활과의 성격, 목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바른생활’교과의 편제와 교육과정 체제, 교과 특성과 교육목표, 지도 내용 및 방법, 평가 등을 교육과정 개정 차시별로 비교 논의해 봄으로써 ‘바른생활’교과의 변화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왜 개정 되었는지에 대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여 그 내용들을 비교·분석·해석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자료와 시기별 교육과정 해설서를 사용했으며, 선행 연구논문·통합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기초로 통합교육과정에 드러난 ‘바른생활’교과의 제4차 교육과정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바른생활’교과의 편제와 교육과정 체제, 교과 특성과 교육목표, 지도 내용 및 방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해석하였다.

II. '바른생활'교과의 사적 전개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광복 후 국가에서 문서로 공포(고시)한 기준에 따라 아홉 차례의 제정·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교육과정의 변천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역사 자체가 통합교육과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8·15해방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진보주의 교육사조의 유입과 함께 통합교육과정의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로 지금까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분과에서 통합으로', '통합에서 분과로'의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곧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체의 성격을 크게 좌우해 왔다(이영만, 2001: 11).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통합교육과정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제4차 교육과정 때지만, 통합교육과정의 아이디어 그 자체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수입되었다. 그 당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조의 영향을 받은 '새교육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선구적인 사람들은 학교의 교육내용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분과적 지식이 아닌 아동의 생활로 받아들였다.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한 교수요목기에는 전통적인 분과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채택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자연관찰과 같은 자연과에 관한 내용과 실과의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사회생활과라는 중핵 교육과정의 성격을 띤 통합교육과정이 존재했음을 볼 때, 당시 진보주의 교육사조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남해진, 2005: 25). 6·25직후 1955년에 고시된 제1차 교육과정에 실질적인 기초가 된 1954년에 발표된 「교육과정시간 배당 기준령」에 나타난 학교 교육과정은 분과주의와 통합주의 사이에 절충적인 성격을 띠었다.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서 종전과 같이 주당 수업 시수를 배당하지 않고 연간 수업의 양만을 백분율로 나타내게 하

는 융통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일선학교에서의 통합교과의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1963년에 고시된 제2차 교육과정은 흔히 생활 또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 터하여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지로는 제1차 교육과정기에 비해 통합교과보다는 분과교과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다만 제2차 교육과정기의 밑바탕에는 아동의 흥미보다는 사회의 개선에 교육의 주안점을 둔 후기 진보주의 교육사조가 깔려 있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해결에 유용성 또는 생산성 있는 통합교과를 낳기도 하였다. 1973년 제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각 교과는 그것이 대변하고 있는 학문의 구조에 의하여 정당화되었으며, 각각의 교과들은 통합하기보다는 그 각각의 지식의 구조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그 당시 교육관계자들 사이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운영지침에 ‘1,2학년의 학습 활동은 가급적 관련 있는 교과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통합교과적 학습이 필요함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4차 교육과정기 이전의 이러한 경향은 교과서 자체가 교육과정상의 교과목 편제와 동일하게 구성되는 엄격한 분과주의적 접근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운영 지침에서 교수·학습 지도 과정에서의 통합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통합교육과정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제4차 교육과정부터 통합 교과가 제시하여 처음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지금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 교과 교육과정을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처음으로 도입된 제4차 교육과정을 전기로서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의 내용을 관련시켜 교과서를 편찬하여 활용하였으며, 통합 교과 교육과정의 정착의 역할을 수행한 제5차~제6차 교육과정을 중기로, 통합 교과 교육과정의 틀 바꿈을 한 제7차~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후기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전기(제4차 교육과정 1981~1987)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통합은 표면상 1981년에 고시된 제4차 교육과정(1981~1987)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한정하여 교과의 통합지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통합교과는 교육과정을 적용했다기 보다는 교과서의 통합에 의한 교육의 시도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당시에는 통합 교육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고시되는 교육과정 자체는 교과 체제 그대로 둔채 교과서만을 통합한 것이다.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도덕, 국어, 사회를 뮤어 바른생활 통합교과서가 나왔다. 그러나 국어, 도덕, 사회 시간에 33시간을 배정했으나 교육과정 시간 배정 기준표에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통합교과의 운영 상황은 [표 II-1]와 같다

[표 II-1] 제4차 '바른 생활'과 교육과정

통합 교과서	관련 교과	수업시간		대상 학년
		1학년	2학년	
바른생활	도덕, 국어, 사회	374시간(11)	374시간(11)	1,2학년

※ 제시된 수업시간수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연간 최소 수업시간수()안은 주당 수업시간 수

제4차 통합교과서에서 통합된 학습지도를 강조하면서 특히 학습자의 발달 심리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제4차 교육과정에서의 통합 방법은 교과자체로 설정해 놓은 내용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실질적인 통합이라기보다 한 단원이나 제제 속에서 병렬적인 나열 방식을 취하였다. 이 시기의 교과통합 방식을 함수곤(1990: 90)은 '다교과 1교과서' 체제라고 칭하였다. 즉, 본격적인 통합교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기존 교과를 전제로 하고 자원으로 삼아 통합하는 방식으로 기존 교과의 독립 혹은 분과주의를 인정한다는 한계를 지녔다.

2. 중기(제5차 교육과정 1987~1992)~(제6차 교육과정 1992~1997)

1987년 고시되고 1989년부터 적용된 제5차 교육과정(1987~1992)에서 드디어 교과서만의 통합 방식을 벗어나서 교육과정 자체에 통합교과를 설정하였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분과주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과 편제 자체에서부터 교육과정통합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에게 알맞은 교육내용을 제시하는 데 교과간의 통합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고, 그 기준을 교육과정에 과감하게 명시했다는 점이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된다(유광찬, 2000: 32),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통합 교과의 운영 상황은 [표 II-2]과 같다.

[표 II-2] 제5차 '바른 생활'과 교육과정

통합 교과서	관련 교과	사용교과서	수업시간		대상 학년
			1학년	2학년	
바른생활	도덕, 사회	바른생활, 바른생활이야기	120시간(4)	136시간(4)	1,2학년

교과목표와 내용,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은 물론, 시간 배당 기준표에도 통합교과별로 연간 수업 시수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은 '탈교과 신통합 교과창조형'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이영만, 2001: 45). 이것은 이미 주어진 독립 분과된 교과의 내용을 학습자의 특성, 내용상의 관련성, 방법상의 효율성 때문에 과목을 합하여 지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6·7세의 아동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교육내용을 학습자와 학습내용의 본질적 입장에서 논리적, 심리적, 측면을 감안하여 통합적

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유광찬, 2000: 22).

이 시기의 변화 중 특이한 사항은 첫째, 기초·기본교과로 도구교과의 성격을 지니는 국어와 산수가 독립교과로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국어와 산수가 분리됨으로 해서, 바른생활은 도덕과 사회과 중심으로 구성되는 통합교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상의 교육과정통합을 성립시켰고, 이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육 자료를 영역별로 분화시키는 한편, 보조 자료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 다양한 자료를 투입하여 교육과정통합의 효율적 운영을 기한 점에서 획기적인 발전과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통합 교과구분의 타당성과 적절성의 측면에서는 계속 연구, 검토의 과제를 남겨 놓았다. 1992년 고시되어 시행되었던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에서는 제5차 교육과정이 남긴 문제점을 치유하는 수준에서 통합교과에 대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바른생활이 사회과가 분리되어 도덕과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저학년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본예절, 기본 생활 습관, 공중도덕 등이 각 영역에 통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새로운 바른생활 교과로 신설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통합 교과의 운영 상황은 [표 II-3]와 같다.

[표 II-3] 제6차 '바른 생활'과 교육과정

통합 교과서	관련 교과	사용교과서	수업시간		대상
			1학년	2학년	
바른생활	도덕 중심	바른생활, 생활의 길잡이	60시간	68시간	1,2학년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기본적인 변화는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첫째, 기본 생활습관과 예절교육의 강화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 바른

생활의 내용이 주변의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와 공동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던 것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천 위주의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교육은 1,2학년의 바른생활뿐만 아니라 3학년 부터 도덕 및 특별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전 생활에 걸쳐 습관화되도록 강조하였다.

둘째, 저학년 통합교과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였다. 1,2학년의 통합교과는 유치원 교육과 연계를 중시하면서 3학년에서의 교과교육을 위한 기본 교육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특히 제5차 교육과정의 바른생활은 도덕과 사회의 요소가 통합되어 있는 것을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의 요소를 슬기로운 생활로 편입시키고, 저학년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본예절, 기본 생활 습관, 공중도덕, 안전 교육, 환경 교육 등이 각 영역에 통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새로운 교과로 독립시켰다.

3. 후기(제7차 교육과정 1997~2007)~(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7~)

1997년에 고시되고 200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1997~2007)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통합교과 개념이 교과와 교과간의 통합개념에서 벗어나 활동 중심의 주제에 의한 통합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기본 정신으로 학습자를 위한 그리고 학습을 위한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에 가까운 활동 주제 중심에 의한 탈교과적인 통합방식을 채택하게 되며, 그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의 통합교과에 대한 개념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교과의 개념의 변화를 박영무(2003: 52)은 다음의 <그림 II-1>과 같이 정립하였다.

제6차 교과와 교과간의 통합 개념	제7차 활동주제 중심의 통합적인 교육
-바른생활(기본습관·예절중심)	-자기주도적 학습, 창의적인 교육활동 -융통성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그림 II-1> 제6차, 제7차 통합 교과 교육과정의 개념

출처: 박영무(2003),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양서울: 서울. p. 62.

이러한 통합교과의 개념 변화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에 도덕과 중심의 바른 생활과 등이 표현이 성립되지 않는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통합 교과의 운영 현황은 다음 [표 II-4]와 같다.

[표 II-4] 제7차 '바른 생활'과 교육과정

통합교과	사용교과서	수업시간		대상 학년
		1학년	2학년	
바른생활	바른생활, 생활의 길잡이	60시간	68시간	1,2학년

2007년 고시되고 200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과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여 생활 경험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통합 교육과정의 근본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 간의 통합적 접근에서 벗어나 주제 중심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통합 교과별 내용 체계표를 활동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 교과의 운영 현황은 다음 [표 II-5]와 같다.

[표 II-5] 2007년 개정 '바른 생활'과 교육과정

통합교과	사용교과서	수업시간		대상 학년
		1학년	2학년	
바른생활	바른생활, 생활의 길잡이	60시간	68시간	1,2학년

지금까지 논의한 우리나라 통합 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6] '바른 생활'과 교육과정의 변천

교과	4차 교육과정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국어	바른 생활	국어	국어	국어	국어
도덕		바른 생활	바른 생활	바른 생활	바른 생활
사회			.	.	.

위의 표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과 편제를 살펴보면, 바른 생활의 경우 4차 교육과정시기에는 도덕+국어+사회로 통합교과서가 발행되고, 5차에서는 도덕+사회로, 6차에서는 사회과가 자연과와 통합하여 슬기로운 생활로 됨에 따라 독립교과로 있다가 7차에서는 다시 도덕과 요소를 중심으로 한 통합 교과를 다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통합교과는 '이 통합교과는 ○○과와 ○○과를 통합한 것이다.'라는 사고방식 즉 기존교과의 틀을 벗어난 탈교과적인 통합적인 활동 주제 중심의 교과임을 자청하고 있다.

전 교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은 1학년은 6차 교육과정시기에는 시·도교육청 편성, 운영권이 이관되었다가 7차 교육과정 시기에 다시 교육

과정 편성권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전국이 같은 수준에서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III. ‘바른생활’교과의 사적 고찰

1. 편제와 교육과정 체제

제4차 교육과정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교과적 학습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수요목기(1946-1954)에는 사회생활과의 구성에서 통합 적요소를 볼 수 있으며,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에서는 학생들의 경험과 생활을 존중하는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이념 아래 교과의 세분화를 지양하고 통합의 원리를 반영하도록 제시한 점에서 통합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에는 교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적 지도에 힘쓰도록 한 점, 제3차 교육 과정기(1973-1981)에는 1, 2학년 학습활동에서 교과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에서 통합적 활동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차 교육 과정에서는 단순한 교과서의 통합제시가 이루어졌을 뿐이며 교육과정의 운영지침에서 교수·학습지도 과정에서 통합을 강조하였으며 순수한 의미의 통합교육과정이나 통합교과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제4차 교육과정기의 통합 교과는 교육과정 개정시 통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과정은 통합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지 못하였다(안정애, 2003: 21). 제4차 교육과정에서의 바른생활과 편제는 1, 2학년 시간배당 기준표에 국어, 도덕, 사회를 묶어 바른생활이라는 통합 교과서를 개발하여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도덕, 국어, 사회시간에 11시간을 배정하였으나, 교육과정 시간 배정 기준표에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비록 수업시간 배정기준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상에 통합에 대한 명시적 표현을 함으로써 완전 통합 교육과정으로 발전하는 과정기적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또한, 제4차 교육과정에서의 통합교과는 교육 내용 구성상의 한계와 제약, 지도방법상의 문제, 평가상의 어려움, 성적산출과 기록 보존상의 문제, 기초 기본 학력의 정착과 직결된 도구 교과의 계통적, 계속적 지도상

의 문제 등을 드러냄으로써 제5차 교육과정에서 통합교과 개선을 위한 새로운 연구과제를 제기하게 되었다(이영만, 2006: 54).

제4차 교육과정에서 통합 교과라는 의미는 둘 이상의 교과서가 묶여 하나의 교과서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시간 운영의 단위가 통합교과서별로 한 묶음으로 제시되었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편제가 교과영역과 특별활동 영역이라는 2대 영역의 편제로 구성되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통합교과 편제는 제4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바른생활’이라는 통합교과를 제시하면서, 교과서 수준의 통합을 교육과정 수준의 통합으로 끌어올리게 되었다. 또한 교과 목표와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은 물론 시간 배당 기준표에도 통합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를 명시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기의 변화중 특이한 사항은 기초, 기본 교과로 도구 교과의 성격을 지니는 국어와 산수가 독립 교과로 분리되고 이에 따라 바른생활과도 도덕과와 사회과 중심으로 구성되는 통합교과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의 대상이 되는 교과의 구분과 각 통합 교과의 성격에 관한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나, 교과에서 다루는 인식의 대상을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으로 구분하면 각각 사회과와 자연과의 영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현상을 분리하여 각각 바른생활과 슬기로운 생활로 구분하여 통합되었다. 이를 함수곤 (1990: 117)은 분과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은 바른생활과에서 사회과가 분리되어 자연과와 통합을 이룸으로써 바른생활과에는 도덕과 요소만 남게 되어 독립교과가 되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 통합 조정은 교육과정 개정 중점의 하나로 저학년 통합과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항목이 제시되었다. 통합 교과의 조정이 이루어진 근본적인 이유로는 초등학교 1,2학년의 통합교과는 유치원 교과와의 연계성을 중시하면서 3학년에서의 교과 교육을 위한 기본 교육으로서의 특징을 고려하고자 한 점이다(김재복, 1994: 46).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바른생활과의 개정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천 위주의 기본생활 습관과 기본생활, 예절 중심으로 개편됨으로써,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를 반영하였다. 이런

변화에 따라 ‘바른생활’이 기존 교과중 ‘도덕’ 중심의 독립교과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3학년부터의 도덕 및 특별활동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바른생활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습관화 되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통합교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통합교과 개념이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 개념에서 벗어나 활동 중심의 주제에 의한 통합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기본정신으로, 학습자를 위한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근접한 활동 주제 중심에 의한 탈교과적인 통합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통합교과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게 되었다(이경환, 1999: 28).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교과의 편제에 다소 변동이 있었다. 통합에 있어서 기존의 단순한 합의와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 활동 주제 중심의 탈교과적인 통합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통합교과 자체에도 변화가 있어 6차 교육과정에서 독립 교과로 있던 바른생활이 다시 통합교과로 편입되었다.

종합적으로 통합교과 바른생활의 편제 변화를 보면, 4차 교육과정기에 도덕, 국어, 사회과의 통합교과서의 발행으로 바른생활이 도입되어 5차 교육과정기에는 도덕, 사회로, 6차 교육과정기에는 사회와 자연을 통합으로 바른생활이 독립교과로 유지되다가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다시 도덕과 요소를 중심으로 한 통합교과로 자리잡게 되었다. 바른생활과의 편제와 연간 수업시간의 개정 차시별 변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바른생활과 교육과정(4차-2007년 개정) 특징 비교 1

시기	관련교과	연간수업시간수		대상학년	사용교과서
4차	도덕·국어·사회	1학년	374	1, 2학년	바른생활
		2학년	374		
5차	도덕·사회	1학년	120	1, 2학년	바른생활
		2학년	136		바른생활 이야기
6차	바른생활(독립교과)	1학년	60	1, 2학년	바른생활
		2학년	68		생활의 길잡이
7차	도덕	1학년	60	1, 2학년	바른생활
		2학년	68		생활의 길잡이
2007년 개정	도덕	1학년	60	1, 2학년	바른생활
		2학년	68		생활의 길잡이

바른생활의 시간 배당의 변화를 보면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1,2학년 주당 11시간씩 배정하여 연간 374시간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1,2학년 주당 4시간씩 배정하여 연간 1학년 120시간 2학년 136시간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기와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편제에서 주당 시간 수의 배정이 사라지고 연간 이수 시수만을 배정하여 1학년 60시간 2학년 68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6차 교육과정기에 도입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주당시수의 자율적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한 때문이다. 바른생활과의 교육과정 체제의 변화를 보면,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바른생활과의 총괄목표와 6개항의 하위 목표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바른생활과의 교과목표, 학년 및 내용,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으로 구분하여 3개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4차와 5차에서 교육과정 영역을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2대 영역으로 편성하여 왔던 체제에서 벗어나 교과활동, 특별활동 및 학교재량시간이라고 하는 3대 영역으로 편성하였다. 바른생활과의 교육과정 기술체계도 6차 교육과정에서는 바른생활과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구분하여 5개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영역을 6차에서와 동일하게 3대 영역으로 편성하였으나, 학교 재량시간의 명칭을 재량활동으로 변경하여 교육과정 영역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의 3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바른생활과의 교육과정 기술 체계도 6차와 마찬가지로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바른생활과 교육과정의 편제와 교육과정 체제를 개정 차시별로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바른생활과 교육과정(4차-2007년 개정) 특징 비교 2

구분	4차	5차	6차	7차	2007년 개정
교육 과정 영역	2대 영역 (교과활동 및 특별활동)	2대 영역 (교과활동 및 특별활동)	3대 영역 (교과활동, 특별활동, 학교재량시간)	3대 영역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3대 영역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1,2학년 · 교육과정: 분과, 교과서: 통합, 도덕, 국어, 사회의 통합교과로서 통합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과와 사회과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학년 도덕과로 독립 · 단일교과 · 독립교과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주제 중심 · 탈교과적 통합 방식 · 통합교과로서 도덕과 요소 중심(저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내용 적정화를 위한 내용 수준 조정 ·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 고려
시간 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1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60시간(1학년) · 연간 68시간(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60시간(1학년) · 연간 68시간(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60시간(1학년) · 연간 68시간(2학년)
교육 과정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활동, 특별활동 · 총괄적인 목적과 6개항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부문으로 구성 1. 교과 목표 2. 학년 목표 및 내용 3.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부문으로 구성 1. 성격 2. 목표 3. 내용 4. 방법 5.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부문으로 구성 1. 성격 2. 목표 3. 내용 4. 교수·학습방법 5.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부문으로 구성 1. 성격 2. 목표 3. 내용 4. 교수·학습방법 5. 평가

2. 특성과 교육목표

‘바른생활’이 통합교과로 규정되게 된 이유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는 통합된 형태의 교과가 더 효율적이라는 철학적, 심리학적 근거로 다음의 몇 가지 특성에 따른 것이다(김두정, 1986: 26). 첫째, 아동의 심신 발달에 통합적 방법이 부합된다는 점이다. 사고가 미분화된 시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습과제와 활동을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습과제는 그들이 경험한 것이거나 그 경험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일 때 학습이 용이하고 또 효과도 높아진다. 다양한 과제는 학생의 학습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인데 이 점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학습 과제의 통합적 운영은 그 다양성을 크게 하여 학생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관심을 키우는데 바람직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학생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시기의 학생은 가정 생활을 떠나 처음으로 공식적인 집단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교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가지게 하고 협동생활을 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바른생활’과의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은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의 적절성 문제와 시대적,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7차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나 그 동안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분과에서 통합으로’, ‘통합에서 분과로’의 과정을 반복해 왔다. 우리 나라에서 통합 교과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4차 교육과정 때이지만 통합과 관련한 아이디어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도입되었다. 1946년 미군정에 의한 시대였던 교육과정의 교수요목기에는 전통적인 분과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택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생활과라는 중핵 교육과정적 성격을 띤 통합교과가 존재했는데, 이는 당시의 진보주의 교육 사조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 통합은 표면상 1981년에 고시된 제4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한정하여 교과의 통합지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통합 교과는 교육과정을 적용 했다기 보다는 교과서의 통합이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제4차 통합교과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통합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해당 교과들의 교육과정 자체를 통합하면서 종래에 통합에 포함되었던 국어과와 산수과를 독립시켰다. 따라서 바른생활은 도덕, 사회 교과의 통합으로 구성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위치와 도덕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바른생활과를 통합교과에서 사회과 요소를 분리한 단일교과로 편제를 변경하였다. 이는 제5차의 바른 생활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교육과정에서 바른생활이 저학년 도덕과의 독립교과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바른생활이 범교과적 통합교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통합 교과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1998: 20). 바른생활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기본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형성하여 건전한 인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통합교과이다. 바른생활은 저학년의 발달 특징과 사회의 도덕적 요구를 감안하여 기본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에 대한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반성하고, 바른 태도가 내면화 되도록 구체적인 체험과 실천을 강조한다. 바람직한 생활 습관과 예절의 실천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지도가 가정 및 사회와 연계되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김윤희, 1999: 60). 통합교과로서의 바른 생활과의 교육목표는 제4차 교육과정의 도덕, 국어, 사회의 교과 통합 운영에서 시작되었다. 제4차 통합교과의 바른생활과는 초기의 언어 능력 향상, 사회 현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며 도덕적 습관과 도덕적 사고와 태도를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남해진, 2005: 50). 제5차에서는 바른생활과의 목표 진술이 제4차에서의 과목별 제시에서 벗어나 교과목표를 종합적으로 진술한 총괄목표와 이를 구체화, 세분화 한 하위목표로 구성되었다. 제6차부터 2007년 개정에서는 바른생활과

의 목표 진술이 제5차에서와 같이 총괄목표와 하위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5차에서 제시되었던 학년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이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도입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관련하여 각 교과별 학년목표를 학교실정을 감안하여 학교 나름대로 교과별 학년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바른생활과의 교과목표를 살펴보면 제4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각 교과 목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되었다. 교과목표는 도덕, 국어, 사회의 내용으로 국민정신 교육의 체계화, 전인교육의 강화, 진로교육의 충실화라는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철학이 반영되었다. 특히 국민정신 교육의 체계화에 기본 철학이 깊게 반영된 교과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습관과 태도, 언어 능력의 향상, 주변의 사회 현상을 이해하도록 강조하였다. 4차 교육과정에 도덕, 국어, 사회과의 교과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도덕)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적 규범을 이해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며, 도덕적생활을 자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국어) 일상의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를 소중히 여기게 한다.

가.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며,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게 한다.

나. 국어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가지게 한다.

다.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글을 즐겨 읽고, 아름다운 정서를 기르게 한다.

(사회) 사회생활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게 하고, 민주 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하며,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을 기른다(교육부, 1982: 10).

통합 교과의 통합 논리 측면에서 볼 때, 제4차의 바른생활과의 분과적 성격으로 도덕과, 국어과, 사회과의 목표를 병합하여 교과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도덕적인 것으로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행동 규범을 이해하며, 민주적이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를 목표로 제시하고, 국어적인 것으로는 “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사랑하며, 우리말과 글의 이치를 알고 문학을 즐긴다.”를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사회적인 것으로는 “가정, 학교, 이웃, 동네 생활을 중심으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고장은 물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싹 트게 한다.”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바른생활은 가정에서 학교라는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초등학교 아동들이 주변의 사회생활을 바르게 이해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도덕적 습관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교육목적을 두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 바른생활과의 총괄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자기가 속한 사회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바른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 가. 일상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와 예절 및 규범을 이해하게 한다.
- 나. 자기가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 다. 공동 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생활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게 하며,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 라. 주변의 사실과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게 하며, 더 알아보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교육부, 1987: 19).

제5차의 바른생활과는 총괄목표로 ‘자가 속하는 사회생활의 모습을 이해하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도덕적인 것과 사회과적인 것으로 구분하면 사회적인 것으로는 ‘사회 생활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 도덕과적인 것으로는 ‘바른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5차 교육과정의 바른생활은 4차의 통합 논리와 비슷하게 ‘도덕’과 ‘사회’의 학문적으로 긴밀한 관련성과 유사성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의 바른생활에서는 도덕성 발달수준, 도덕교육상의 중점, 도덕적 성향의 특성 등이 총괄목표에 반영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이 총괄목표로 제시되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 규범을 습관화하여, 건전한 도덕성의 기초를 형성하게 한다.

- 가.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한다.
- 나. 일상 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 규범을 실천하여 습관화하게 한다(교육부, 1992: 11).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바른생활의 성격은 획기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6차 교육 과정에서의 바른생활은 여러 교과들을 합친 통합교과가 아니라, 아동들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저학년 도덕 교과가 된 것이다(한명희, 1993: 17). 따라서 바른 생활과의 목표도 저학년 단계에 맞게 인지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관습적인 덕목의 내면화를 통해 자율적인 도덕성 발달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바른생활에서는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의 이해와 아울러 계속적인 실천을 통한 습관화를 총괄 목표에서 제시하고 있어 건전한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바른 생활 교과의 목표를 두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바른생활과의 총괄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을 알고 습관화하여, 건전한 인성을 지닌 민주시민의 자질을 형성한다.

- 가. 기본생활습관과 예절 및 규범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
- 나.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의 실천을 통해 건전한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교육인적자원부, 1998: 38).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6차에서와 같은 동일한 통합 논리로 접근하였으며, 기존의 인지적 측면에 치우쳤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바른생활과의 총괄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형성한다.

- 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초보적인 가치 판단 능력을 기른다.
- 나.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을 지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 다. 일생생활에서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을 꾸준히 실천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59).

제7차 교육과정에서 2개로 제시하였던 하위 목표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개로 제시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에 대해 바로 알고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게 하는 한편, 바람직한 삶을 존중하고 추구하려는 자세를 바탕으로 꾸준히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표 III-3] 바른생활과 교육과정(4차-2007년 개정) 교육목표 비교

구분	4차	5차	6차	7차	2007년 개정
목표 제시 형태	◦ 교과목표와 학년목표로 구성	◦ 총괄목표와 하위목표, 학년목표로 구성	◦ 총괄목표와 하위목표로 구성	◦ 총괄목표와 하위목표로 구성	◦ 총괄목표와 하위목표로 구성
교과 또는 총괄 목표	[교과목표] ◦ 기초적인 행동 규범을 이해, 민주적이고 원만한 사회생활 ◦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기 ◦ 가정, 학교, 이웃, 동네 생활을 중심으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이해, 민족적 자부심 배양	[총괄목표] ◦ 사회생활 모습의 이해 ◦ 올바른 생활의 영위	[총괄목표] ◦ 기본 예절과 도덕 규범의 습관화 ◦ 건전한 도덕성의 기초 형성	[총괄목표] ◦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을 알고 습관화 ◦ 건전한 인성을 지닌 민주 시민의 자질 형성	[총괄목표] ◦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을 배우고 익힘 ◦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 자질 형성
	[학년목표] ◦ 도덕1,2학년: 기본 생활 습관의 이해 ◦ 익히기 원만한 인간관계, 복한 주민의 참상 알기 ◦ 국어1,2학년: 침착하게 말하기, 말의 내용에 유의하며 듣기, 한글의 짜임, 노랫말 즐기기 ◦ 사회1,2학년: 생활주변의 사실과 현상 이해, 자연의 이용모습 알기, 조상들의 협력생활 모습, 고장 발전을 위한 노력	[하위목표] ① 기본예절 규범의 이해 ② 바람직한 생활 습관 및 태도 ◦ 형성, 애국 애족 의식 고취 ③ 자신과 타인의 이해와 존중, 자주의식 고취 ④ 주변의 사실과 현상 관찰 및 탐구심 함양	[하위목표] ① 기본 예절 도덕규범의 의미와 중요성 알기 ② 기본 예절 도덕 규범의 실천 및 습관화	[하위목표] ① 기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 알고, 실천능력과 태도 중요성을 이해, 형성 ② 기본 생활 습관, 예절 및 규범의 실천을 통해 건전한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하위목표] ①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및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 가치 판단 능력 기를 ② 기본 생활 습관 예절 및 규범의 실천을 통해 건전한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③ 생활 속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습관을 꾸준히 형성

바른 생활과의 목표를 비교해볼 때 도덕성과 인성이나 민주 시민의 자질 간의 표현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6차에서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바른생활과는 동일한 통합 논리를 따르고 있다. 바른생활과의 교육과정 개정 차시별 교육목표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제시하면 앞의 [표 III-3]과 같다.

3. 지도 내용 및 방법

제4차에서 2007년 개정까지 바른생활과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을 비교해 보면 차시마다 지도내용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바른생활과에 포함된 교과영역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사회, 도덕 교과가,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사회 교과가,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로 기본생활습관 및 예절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예절과 규범의 습관화와 더불어 건전한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바람직한 삶을 존중하고 추구하려는 자세를 바탕으로 꾸준한 실천을 강조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상에 명시된 개정차시별 지도내용의 영역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4] 바른생활과 교육과정(4차-2007년 개정) 내용 영역 비교

구분	제4차교육과정	제5차교육과정	제6차교육과정	제7차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용	(도덕) ◦ 개인의 발전을 위한 생활 ◦ 명랑한 사회를 위한 생활 ◦ 나라의 발전을 위한 생활 ◦ 평화통일을 위한 생활 (사회) ◦ 학교생활 ◦ 가정생활 ◦ 이웃생활 ◦ 나라사랑	(도덕) ◦ 개인의 발전을 위한 생활 ◦ 명랑한 사회를 위한 생활 ◦ 나라의 발전을 위한 생활 ◦ 평화통일을 위한 생활 (사회) ◦ 학교생활 ◦ 가정생활 ◦ 이웃생활 ◦ 나라사랑	(도덕) ◦ 행복한 우리집 ◦ 함께 사는 이웃 ◦ 즐거운 우리학교 ◦ 자랑스런 우리나라	(도덕) ◦ 개인생활 ◦ 가정 · 이웃생활 ◦ 학교생활 ◦ 사회생활 ◦ 국가 · 민족생활	(도덕) ◦ 예절지키기 ◦ 질서지키기 ◦ 내일 스스로 하기 ◦ 다른 사람 생각하기 ◦ 나라 사랑하기	(도덕) ◦ 내일 스스로 하기 ◦ 예절지키기 ◦ 다른 사람 생각하기 ◦ 질서지키기 ◦ 나라 사랑하기
영역						
2학년	(도덕) ◦ 개인의 발전을 위한 생활 ◦ 명랑한 사회를 위한 생활 ◦ 나라의 발전을 위한 생활 ◦ 평화통일을 위한 생활 (사회) ◦ 우리고장의 자연과 생활 ◦ 고장 사람들의 협력	(도덕) ◦ 보다 나은 학교 생활 ◦ 화목한 가정생활 ◦ 서로 돕는 고장 생활 ◦ 빌전하는 우리나라	(도덕) ◦ 개인생활 ◦ 가정 · 이웃생활 ◦ 학교생활 ◦ 사회생활 ◦ 국가 · 민족생활	(도덕) ◦ 예절지키기 ◦ 질서지키기 ◦ 내일 스스로 하기 ◦ 다른 사람 생각하기 ◦ 나라 사랑하기	(도덕) ◦ 내일 스스로 하기 ◦ 예절지키기 ◦ 다른 사람 생각하기 ◦ 질서지키기 ◦ 나라 사랑하기	

제4차 교육과정기의 바른생활과는 1학년 사회과 내용 영역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1,2학년 공통으로 학교, 가정, 이웃(고장), 국가의 4개 영역

으로 구성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제5차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바른생활은 그 명칭은 동일하지만 실질적인 교과내용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 통합교과로서 바른생활은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태도의 형성, 사회 현상과 관련 규범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1, 2학년 학생의 수준에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여, 선정된 내용을 생활영역과 관련지어 도덕, 사회과의 통합지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반면 제6차 교육과정에서 바른생활은 학생들의 생활경험이 공간적으로 확대해 가는 생활상의 특성을 살려 생활영역 중심으로 내용체계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6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적 요소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5차 교육과정처럼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반면 제7차의 바른생활이 활동내용 중심의 영역으로 내용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7차의 바른생활과가 도덕과와 계열적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통합 교과로 규정됨에 따라 내용 영역의 구분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6차 교육과정에 따른 바른생활과는 도덕과와 같은 성격의 교과였으나, 7차 교육과정에 입각한 바른생활과는 활동 중심의 통합교과를 지향하기 때문에 활동 내용 중심의 영역 구분이 필요하였다. 또한 기존의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 구분이 저학년 학생들에게 바른생활과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용을 중심으로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행위를 영역의 명칭으로 정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1998: 24).

이와 같은 점이 제7차가 범교과적 통합교과를 지향하지만, 6차의 바른생활과 동일한 통합논리를 따르기에 그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7차의 바른생활이 더 발전된 형식의 통합교과임을 보여주는 7차만의 독특한 특성이다(남해진, 2005: 40). 제4차부터 제7차까지의 바른생활과의 지도내용 요소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항목끼리 분류한 결과 개인생활, 가정·이웃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생활로 구분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5] 바른생활과 교육과정(4차-2007년 개정) 학년별 내용 비교

학년	구분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2007년 개정
1학년	개인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세를 바르게 하 고 용의 단정히 하기 ◦ 안전에 유의하기 ◦ 등하교시 지켜야 할 일 ◦ 자율적 생활태도 갖기 ◦ 규칙적인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정한 몸가짐과 올바른 학습태도 ◦ 나의 성장고정 ◦ 건강한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몸가짐 ◦ 자기일 스스로 하기 ◦ 시간 지키기 ◦ 정리정돈 ◦ 생활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깨끗이 하기 ◦ 자세 바르게 하기 ◦ 스스로 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깨끗이 하기 ◦ 자세 바르게 하기 ◦ 스스로 준비하기
	가정 · 이웃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하는 이웃되 기와 예절 및 생활 습관 익히기 ◦ 가정의 어른공경 과 형제간의 우애 ◦ 우리 집 · 가족 ◦ 집 주변의 모습관찰 · 표현 ◦ 물건의 선택, 절약, 저축 및 자율적 인 생활습관 ◦ 이웃사람들이 하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에 알맞은 인사 ◦ 식사예절 ◦ 형제간의 우애 ◦ 이웃간 예절 ◦ 웃어른에 대한 바른 말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게 인사하기 ◦ 바르게 식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게 인사하기 ◦ 바르게 식사하기 	
	학교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 친구의견 존중하기 ◦ 학교생활의 특색 ◦ 학교의 구성원과 하는 일 및 서로의 관계 ◦ 행사의 종류, 의의, 참여하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 학교 시설물 이용과 물건 정리하기 ◦ 가정과 학교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 학교생활에의 적응 ◦ 학급 물건 애용 ◦ 등하교시의 안전 ◦ 선생님에 대한 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 학교 규칙 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 여럿이 함께 쓰는 물건 소중히 다루기
	사회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의 종류와 기능 및 이용 태도 ◦ 차례 지키기 ◦ 친구 돋기 ◦ 이웃사람들이 하는 일과 서로 돋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생활을 위한 협동 ◦ 예절습관 ◦ 사람들의 상호 의존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의 이용방법 ◦ 쓰레기 처리 ◦ 질서 ◦ 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물건 사용법 ◦ 쓰레기 처리 ◦ 차례 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례지키기 ◦ 규칙지키기 ◦ 환경을 보호하기
	국가 민족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국가, 무궁화, 국가원수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 및 예절 지키기 ◦ 북한 어린이의 비참한 생활을 동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상징 ◦ 고장의 모습과 향토사랑 ◦ 민속 명절의 의의 ◦ 북한 주민들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애국가에 대한 예절 ◦ 애국 선열에 감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바로 달기 ◦ 애국가 바로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것을 알고 사랑하기

학년	구분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2007년 개정
2학년	개인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할 일을 자기 가 하기 ○ 거짓말하지 않기 ○ 절약·저축하기 ○ 반성하는 태도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 장래를 위한 포부와 이를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소한 생활 ○ 자신감과 긍지 ○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공부하기 ○ 물건 아끼고 정리하기 ○ 옷 단정히 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차림 단정히 하기 ○ 물건을 아끼고 정리, 정돈하기 ○ 자기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기
	가정 · 이웃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 공경하기 씩 사·방문, 접대시의 예절 지키기 ○ 형제간에 우애 갖기 ○ 가정 일에 참여하기 ○ 우리 고장의 자연이 용모습 ○ 여려 고장 어린이들의 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 ○ 서로 돋는 고장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생활의 특징 ○ 가정의 내력과 친척 참여 ○ 가정행사의 의의와 북한의 가정 생활과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말, 고운말 ○ 이웃에게 피해주는 행동 삼가기 ○ 효도 ○ 친척간의 예절 ○ 때와 장소에 알맞은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고 고운말 쓰기 ○ 이웃간의 예절 ○ 화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고 고운 말 쓰기 ○ 가족끼리 서로 돋고 화목하게 지내기
	학교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을 공평하게 대하기 ○ 학교 일에 참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옛날과 오늘 날의 모습, 발전을 위한 노력 ○ 학교와 고장의 관계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의 의견 존중 ○ 학교 규칙 준수 ○ 학교 시설 애용 ○ 학교에 대한 긍지와 사랑 		
	사회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지키기 양보하기 ○ 공동 생활에서 지켜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의 환경 ○ 고장의 주요 산물과 생활 ○ 고장을 돋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속 지키기 ○ 자연보호 ○ 공중도덕 ○ 책임 ○ 불우이웃 돋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속 지키기 ○ 환경보호 ○ 교통규칙 ○ 질서 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약속지키기 ○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기 ○ 생명을 보호하기 ○ 교통 질서와 규칙 지키기 ○ 생명을 보호하기
	국가 민족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 갖기 ○ 국토에 갖기 ○ 북한주민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사회적 행사의 의의 ○ 북한보다 잘 사는 우리의 생활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애 ○ 민족애 ○ 통일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나라의 자랑거리 알기 ○ 무궁화 사랑하기 ○ 통일에 관심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소중히하기 ○ 통일에 대하여 관심가지기

바른생활 관련 지도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도덕적 요소를 통해 저학년의 예절과 도덕규범의 습관화를 이루고자 하는 내용요소가 중점을 이루고 있다. 즉,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적 규범의 실천을 통합 습관화를 강조하였다.

둘째, 개정 차시별로 통합된 교과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내용요소로 선정된 영역이 비교적 공통적이다.

셋째,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내용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4차에서는 ‘북한주민 동정하기’, ‘간첩과 무장공비의 만행을 경계하기’ 등과 같은 내용이 지도 내용요소로 도입되었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같은 내용이 도입되어 교육과정 설정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넷째,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지도 내용요소가 많이 축소되었다. 이는 바른생활과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인 내용 적정화 방안을 토대로 다양한 내용의 이해보다는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하여 습관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다섯째, 제7차 바른생활의 지도내용요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도내용이 추상적인 규범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가능 한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자기 주변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함이다.

바른생활과 저학년의 지도 방법은 차시별 강조점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바른생활을 통해 국민 정신 교육의 체계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제4차 통합교과서가 설정될 당시부터 바른 생활은 국민정신 교육의 체계화에 관한 철학이 깊게 반영된 교과였다. 국민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화한 교육이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국가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도덕적 인격을 갖추게 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남해진, 2005: 45).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5차의 바른생활은 여전히 국민정신 교육의 체계화를 강조함으로써, 공산주의인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로 포상되는 한국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과의 비교를 초등학교 저학년의 지도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지도상의 유의점을 교육과정에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주로 통합 교과의 지도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통합교과의 특성을 살린 지도방법의 적용

에 주력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 와서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예절과 규범을 지도하는 방법적 윤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제시하여 실천을 통한 습관화를 이루고자하는 지도 방법이 활용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표 III-6] 바른생활과 교육과정(4차-2007년 개정) 지도내용 · 방법 및 평가 비교

구분	4차	5차	6차	7차	2007년 개정
지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 개인발전·명랑한 사회·평화통일을 위한 생활 ◦ 국어: 말하기·듣기, 쓰기·읽기, 표현이 해와 언어, 문학 ◦ 사회: 1학년 학교, 가정, 이웃, 나라사랑 2학년 우리들의 생활 모습, 고장의 자연과 생활, 고장 사람들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생활 영역으로 구성 ◦ 1. 학교생활 ◦ 2. 가정 생활 ◦ 3. 고장 생활 ◦ 4. 국가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생활 영역으로 구성 ◦ 1. 개인 생활 ◦ 2. 가정·아웃 생활 ◦ 3. 학교 생활 ◦ 4. 사회 생활 ◦ 5. 국가·민족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영역으로 구성 ◦ 1. 내일 스스로 하기 ◦ 2. 예절 지키기 ◦ 3. 다른 사람 생각하기 ◦ 4. 질서 지키기 ◦ 5. 나라 사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영역으로 구성 ◦ 1. 내일 스스로 하기 ◦ 2. 예절 지키기 ◦ 3. 다른 사람 생각하기 ◦ 4. 질서 지키기 ◦ 5. 나라 사랑하기
지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정신 교육의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상의 유의점 다섯 가지 제시 ◦ 주로 통합 교과의 지도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학년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예절과 규범을 지도하는 방법적 윤리를 중심으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 ◦ 학습자 중심 교육 ◦ 행동의 습관화 ◦ 칭찬과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생활 습관 형성 ◦ 모범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 ◦ 반복적, 지속적인 지도 강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1학기 : 수량적 평가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유의점 세 가지 제시 ◦ 주로 통합 교과의 평가 방안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대상 ◦ 평가의 방법 ◦ 기록방법 ◦ 활용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기준 평가 ◦ 질적 평가 (포트폴리오 등 활용) ◦ 다양한 평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계획, 평가 목표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을 구분하여 제시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학습으로 교사의 지도하에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학습과제에 따른 탐구와 해결을 스스로의 힘으로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 중심교육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를 위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활동중심 주제에 의한 탈 교과적인 통합 방식으로 저학년 통합교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제통합 교수-학습을 하도록 하였다. 바른생활과의 교육과정 지도내용·방법 및 평가를 개정차별 특징을 비교하면 앞의 [표 III-6]과 같다.

바른생활과의 평가를 분석해 보면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1학기 시기에는 수량적 평가를 지양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평가결과의 비수량화’, ‘다양한 방법의 활용’ 등을 강조하고 있어, 평가를 통해 교수-학습을 촉진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평가결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어 평가를 통한 학생의 서열화가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제4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초등학교 바른생활과의 변천에 관한 고찰이다. 논의의 초점은 주로 그 동안의 바른생활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① 편제와 교육과정 체제 ② 특성과 교육목표 ③ 지도 내용 및 방법 등이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요약해 두면 아래와 같다.

(1) 편제와 교육과정 체제

첫째, 제4차와 제5차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영역을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2대 영역으로 편성하였고,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영역을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6차에서는 '학교 재량시간')의 3대 영역의 편제로 구성되었다.

둘째, 제4차와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통합교과 편제는 '바른생활'이라는 통합교과를 제시하였으나, 제4차의 바른생활은 교과서의 통합, 제5차의 바른생활은 교과서 수준의 통합을 교육과정 수준의 통합으로 끌어올리는 변화를 가져왔으며, 시간 배당 기준표에도 통합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를 명시하였다.

셋째, 제5차 교육과정기의 변화 중 특이한 사항은 기초, 기본 교과로 도구 교과의 성격을 지니는 국어와 산수가 독립 교과로 분리되고 이에 따라 바른생활과도 사회와 도덕과 중심으로 구성되는 통합교과가 되었다.

넷째,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은 바른생활과에서 사회과가 분리되어 자연과와 통합을 이름으로써 바른생활과에는 도덕과 요소만 남게 되어 독립교과가 되었다.

다섯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통합교과 개념이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개념에서 벗어나 활동중심의 주제에 의한 통합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 교육'을 기본정신으로, 학습자를 위한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근접한 활

동 주제 중심에 의한 탈교과적인 통합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통합교과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었다.

여섯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교과의 편제에 있어서 기존의 단순한 합의와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 활동주제 중심의 탈교과적인 통합방식을 택하였으며, 6차 교육과정에서 독립 교과로 있던 바른생활이 다시 통합교과로 편입되었다.

일곱째, 통합교과 바른생활의 편제는 4차 교육과정기에 도덕, 국어, 사회과의 통합교과서의 발행으로 바른생활이 도입되어 5차 교육과정기에는 도덕, 사회로, 6차 교육과정기에는 사회와 자연을 통합으로 바른생활이 독립교과로 유지되다가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다시 도덕과 요소를 중심으로 한 통합 교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여덟째, 바른생활의 시간 배당은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1, 2학년 주당 11시간씩 배정하여 연간 374시간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1, 2학년 주당 4시간씩 배정하여 연간 1학년 120시간, 2학년 136시간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기와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편제에서 주당 시간 수의 배정이 사라지고 연간 이수 시수만을 배정하여 연간 1학년 60시간, 2학년 68시간을 운영하였다.

아홉째, 바른생활과의 교육과정 체제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바른생활과의 총괄목표와 6개항의 하위 목표로 구성하여 제시하였으며,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바른생활과의 교과목표, 학년 및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으로 구분하여 3개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2) 특성과 교육목표

첫째, 초등학교 교육과정 통합은 표면상 1981년에 고시된 제4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한정하여 교과의 통합지도가 실시되었으나, 이 시기의 통합 교과는 교육과정을 적용 했다기 보다는 교과서의 통합이었다.

둘째,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제4차 통합교과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통합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해당 교과들의 교육과정 자체를 통합하면서 종래에

통합에 포함되었던 국어과와 산수과를 독립시킴으로써, 바른생활은 도덕, 사회 교과의 통합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위치와 도덕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바른생활과를 통합교과에서 사회과 요소를 분리한 단일교과로 편제를 변경하였다. 이는 제5차의 바른생활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교육과정에서 바른생활이 저학년 도덕과의 독립교과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바른 생활이 범교과적 통합교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통합 교과의 개념을 재정립하였으며, 바른생활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기본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형성하여 건전한 인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통합교과이다.

다섯째, 바른생활은 저학년의 발달 특징과 사회의 도덕적 요구를 감안하여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에 대한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반성하고, 바른 태도가 내면화되도록 구체적인 체험과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섯째, 통합교과로서의 바른생활과의 교육목표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초기의 언어 능력 향상, 사회 현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며 도덕적 습관과 도덕적 사고와 태도를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5차에서는 바른생활과의 목표 진술이 과목별 제시에서 벗어나 교과목표를 종합적으로 진술한 총괄목표와 이를 구체화, 세분화 한 하위목표로 구성되었다.

일곱째, 제4차 바른생활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각 교과 목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되었으며, 도덕, 국어, 사회의 내용으로 국민정신 교육의 체계화, 전인교육의 강화, 진로교육의 충실화라는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철학이 반영되었다.

여덟째, 제6차와 제7차에서는 바른생활과의 목표 진술이 총괄목표와 하위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제5차에서 제시되었던 학년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홉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바른생활에서는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의 이해와 아울러 계속적인 실천을 통한 습관화를 총괄목표에서 제시하고 있어 건전한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바른생활 교과의 목표를 두고 있다.

열째, 바른생활과의 목표를 비교해볼 때 도덕성과 인성이나 민주시민의 자질간의 표현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바른생활과는 동일한 통합 논리로 접근하였으며, 기존의 인지적 측면에 치우쳤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3) 지도 내용 및 방법

첫째, 바른생활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교육과정 개정 차시마다 지도내용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바른생활과에 포함된 교과영역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사회, 도덕 교과가,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사회 교과가,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로 기본생활습관 및 예절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예절과 규범의 습관화와 더불어 건전한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강조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제4차 교육과정기의 바른생활과는 1학년 사회과 내용 영역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1, 2학년 공통으로 학교, 가정, 이웃(고장), 국가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제6차 교육과정에서 바른생활은 학생들의 생활경험이 공간적으로 확대해 가는 생활상의 특성을 살려 생활영역 중심으로 내용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는 제7차의 바른생활과가 도덕과와 계열적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통합 교과로 규정됨에 따라 내용 영역의 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넷째, 제7차가 범교과적 통합교과를 지향하지만, 제6차의 바른생활과 동일한 통합논리를 따르고 있지만 제7차의 바른생활이 더 발전된 형식의 통합교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제4차부터 제7차까지의 바른생활과의 지도 내용 요소를 동일한 항목끼리 묶어 분류한 결과 개인생활, 가정·이웃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생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여섯째, 바른생활과 저학년의 지도방법은 차시별 강조점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바른생활을 통해 국민정신교육의 체계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일곱째, 제5차의 바른생활은 국민정신 교육의 체계화를 강조함으로써,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북한체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로 포상되는 한국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과의 비교를 초등학교 저학년의 지도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여덟째,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지도상의 유의점을 교육과정에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주로 통합 교과의 지도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 통합교과의 특성을 살린 지도방법의 적용에 주력하였다.

아홉째, 제6차 교육과정에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예절과 규범을 지도하는 방법적 윤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실천을 통한 습관화를 지도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도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열째, 바른생활과의 평가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1학기 시기에는 수량적 평가를 지양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평가 결과의 비수량화’, ‘다양한 방법의 활용’ 등을 강조하고 있어 평가를 통해 교수-학습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였으며,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평가 결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어 평가를 통한 학생의 서열화가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2.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통합교육과정인 ‘바른생활’교과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제4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바른생활'교과가 그동안 우리나라 초등교육에서 20여년 동안 자리잡아 오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위치나 발달적 특징에 적합한 통합교과로서의 개념을 정립했다는 자위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 통합교과로서의 바른생활이 견진한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이라는 교과목표 속에 실천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습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 더 고무적인 변화는 진정한 통합교과로서의 변환을 이루어 학습자 중심의 탈교과적인 통합방식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도덕적 요소 중심의 바른생활과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바른 인성, 도덕성 함양, 학습 방법이나 학습 활동에도 팔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 통합 교과로서의 바른 생활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통합 교과인 바른생활과는 서양 교육학의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의 현장을 점검해 보면 '활동 대 교과'의 패러다임이었다. 그리하여 바른생활과의 실제는 지식범주를 통합하려는 세계만이 목격되었다. 즉 바른 인성, 도덕성 함양을 추구해야 하는 바른생활과에는 '사·람·됨'을 고양시켜 나아가는 교육 즉 사람의 품급을 교육적으로 격상시키려는 인격통합교육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배태하고 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서양식의 바른생활과에는 인격통합이라는 교육영역이 삭제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서양식 바른생활과에 배타하고 결락되어진 부분을 인격통합 교육으로 재탄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주석(1990). 초등학교 통합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희(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통합방식의 개정 시기별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기철(2005). 초등학교 교육과정 프로젝트 수업의 운영.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1982).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87).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2).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2007).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경희(2001). 초등학교 통합교육과정 확대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현(1995). **학교 중심의 통합교육과정 개발**. 서울: 양서원.
- 김두정(1986).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육과정 구성의 기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윤희(1999). 초등학교 제 6, 7차 교육과정과 통합교육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복(1994).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김재복(2000). **통합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사.
- 김태문(1992).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의 통합방식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해진(2005). 초등학교 통합교과의 변천에 관한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제은(2003). 초등학교 제 7차 통합교과 운영에 관한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무(2003).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배 건(1997). 초등학교 통합 교육과정의 통합유형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명석(2009). 인격교육을 통한 통합교육과정 담론의 해체와 재구성. **인격교육**. 3(1), 5-29.
- 송춘식(2002). 초등학교 통합교육의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애(2003). '즐거운생활'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광찬(2000). **통합교육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이경환(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영만(2001). **통합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 이영만(2006). **초등통합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 최경로(1996). 초등학교 통합교육과정의 구성방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소자(1993). 주제 접근 방법의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웅기(2003).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통합방식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명희 외(1993).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과학사.
- 함수곤(1990). **한국 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Kysilka, Marcella L.(1998). Understanding intergrated curriculum. *The Curriculum Journal*. 9(2). 197-209.

ABSTRACT¹⁾

Historical Review of the subject ‘Right Life’ as Integrated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Ko, Dal-Ho

Supervised by Professor Seo, Myoung-Seok, Ph. D.

**Major in the method of an elementa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s interest in researching integrated subject curriculum has increased, there has been changes in curriculum in Korea. Since the first introduction of integrated subject curriculum for Year 1 and 2 in elementary school in the Fourth Curriculum implemented from 1982 in Korea, it has been developed to the current 2007 Revised Curriculum. Having looked at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integrated subject curricular, there have been active researches on exploring integrated educational methods appropriate for the conditions of Korea. However, most studies are about measures to

1)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February, 2010.

operate and implement integrated curriculums and integrated methods in relation to integrated curriculums. It is rare to find studies on the historical meaning and changes of integrated curriculum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and examine curriculum of the subject ‘Right Life’ from the Fourth Curriculum that has started to introduce integrated subject to the 2007 Revised Curriculum in revising Korean curriculum. It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purposes and contents of the subject ‘Right Life’. This research is motivated from the fact that it will be helpful to provide the foundation of operation of the subject ‘Right Life’ and development of integrated subject curriculum through the comparison and discussion of formation, curriculum system,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purposes of the subject, teaching contents, methodology and evaluation of the subject ‘Right Life’ by curriculum revision. This study reminds us many points on the subject ‘Right Life’, which is an integrated curriculum. As the subject ‘Right Life’ has come to the current status in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for the last 20 years since its introduction in the fourth curriculum, we can evaluate that we have established the subject as the concept of integrated subject appropriate for the position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in lower years in elementary school. It is also proper that ‘Right Life’ as the integrated subject pursues habits as educational activities focusing on practices with the subject purpose of healthy human nature and promotion of democratic citizens. More encouraging change is that it has transformed as a true integrated subject and formed student-centered integrated method as it attempts to be free from being a subject.

Nevertheless, now we mostly don’t agree that ‘Right Life’, which is an integrated subject focusing on moral elements, made huge difference in promoting right human nature and morality to students in lower years in elementary school and there have been notable changes in learning methods

and activities. This is because there are some problems of ‘Right Life’ as an integrated subject in school education, which has to be improved. Firstly,

‘Right Life’ has not secured enough time that teachers can instruct it repeatedly and continually in daily life in school curriculum. Therefore, we have to solve the problem of securing enough time including securing educational time in curriculum, cooperative teaching measures with other activities other than the subject, and securing time in subject time providing integrated contents. In addition, we also need to consider whether composition of the contents of the subject ‘Right Life’ reflects and accepts the change of the time and social demands. Furthermore, transition of operation of the subject ‘Right Life’ to the direction that its characteristics as integrated subject is well presented by making topical integration focusing on life and experience escaping from the integration focusing on the subject morality or presenting specific activities for improvement of self leading abilities is required.

Key Words: integrated curriculum, Right Life, subject